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왼쪽)과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오른쪽)이 일본 도쿄 유덴지(祐天寺)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강제 징용됐다가 숨진 한국인 무연고 유골위패를 둘러보고 있다.

다시는 이런 아픔 없길...

제25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2차대전 한국인 희생자들 위한 위령제 현장

‘고국의 품으로 돌아가 편히 잠들고 싶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희생된 한국인의 무연고 유골 1,136기가 안치되어 있는 일본 도쿄 유덴지(祐天寺). 2차대전이 끝난지 59년이 지난 6월 10일, 강제 징용의 설움을 가슴에 품고 바다 건너 일본땅에서 죽은 한국인의 원혼을 달래는 위령제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열렸다. 죽어서조차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들의 한(恨)을 풀어주기 위해 한국에서 주요 종단 대표들이 반세기하고도 9년이 더 지난 뒤에야 그들을 찾아온 것이다.
 유덴지 본당에서 열린 이날 위령제는 2002년에 이어 두 번째, 1978년 첫 교류를 시작한 이후 두 나라 불교계는 유골의 한국 송환을 위해 10여년간 협의를 왔다. 그러나 한국인 유골은 양국 정부의 입장 차이로 반환이 이뤄지지 못한 채 도쿄 외곽의 조그만 사찰에 봉안돼 있다.
 1,136기의 한국인 희생자 유골이 유덴지에 봉안된 것은 일본 후생성(한국외국인복지부)에 해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연고가 있는 유골은 이미 개인적으로 한국으로 송환됐고 연고자를 찾지 못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들이 남아있다. 이 가운데 750여기는 남한의 주소와 갖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 남겨진 유골은 이들만이 아니다. 박상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상임이사는 이 곳 외에도 한국인들의 유골과 위패는 일본 곳곳의 사찰에 흩어져 안치돼 있다고 귀뜸한다.
 한국 불교 대표단의 요청으로 열린 이날 위령제는 한국식 법으로 진행됐다. 집전은 조계종 사회부



장 지원 스님과 천태종 교무부장 춘광 스님이 맡았다. 일본 사찰에서 열리는 한국의 법회인 셈이었다.
 이날 위령제를 위해 한국측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관음종

1천136기 한인 희생자 유골...750여 기는 남한 주소 지녀 200여명 참석한 가운데 도쿄 유덴지에서 한국식 법으로 진행

이번 위령제는 6월 9일 가마쿠라(鎌倉) 고메이(光明寺)에서 열린 제25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일한 한국불교계 대표단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위령제를 통해 양국의 해결되지 않은 역사를 일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매듭을 풀려

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양국간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는 일본인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실제로 2년전 유덴지에서 첫 위령제를 연 뒤 2차대전이 끝난지 57년이 지난음에도 한국인의 유골이 일본내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상측과 다니 겐쇼 일한불교교류협회 이사장의 추모사가 낭독되자 위령제가 열리는 현장의 분위기는 숙연해졌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의 추모사가 이어졌다. 운덕 스님은 한국인 희생자들의 유골 앞에서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개를 떨었다.
 법당에 모인 양국 대표단이 등그렇게 모여 앉았다. 그 가운데서 불교무용가 정덕자 씨의 살풀이 춤사위가 펼쳐졌다. 정 씨는 온몸으로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동작 하나하나에 식민지 역사의 아픔을 담았다. 그렇게라도 한국인 희생자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리길 기도했다.
 위령제가 끝나고 유골이 안치돼 있는 장소로 자리를 옮겼다. ‘태평양전쟁 조선반도 출신 구 일본군인 군속 전몰자 영위(太平洋戰爭 朝鮮半島 出身 舊 日本 軍人 軍屬 戰死者 靈位)라고 쓰인 위패 앞에서 분향한 뒤 합장했다. 한국측의 한 참가자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면서 되뇌었다.
 “얼른 가자, 여기서 뭐하노. 얼른 가자.”
 글·사진/일본 도쿄=박봉원 기자 bypark@buddhapia.com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 남정 스님(사진 왼쪽)·총회총 총무원장법장과 일본측 사무총장이 세계평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을 하고 있다.



6월10일 도쿄 유덴지에서 한국과 일본 불교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제 2차 세계대전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 730-0705**

여름 특별기획안내 (회화유람선으로 이는 중국여행 및 사찰순례)

호화유람선 진천페리로 제주 화요일 출발

- 천진, 북경 7일(피운사, 와불사, 옹화궁) ₩ 390,000원
- 천진, 북경, 낙양 7일(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490,000원
- 천진, 북경, 오대산 7일(운강석굴, 화엄사, 현통사) ₩ 590,000원

호화유람선 진천페리로 제주 금요일 출발

- 천진, 북경, 내몽고 8일(호화호특) ₩ 520,000원
- 천진, 북경, 패상초원 8일(포타리궁, 보녕사) ₩ 520,000원

호화유람선 위동페리로 제주 목요일 출발

- 청도, 제남, 곡부 6일(천불산 만불동, 영암사, 잠산사) ₩ 390,000원

요급포함내역(공통사항)

- 포함사항: 왕복 선박료, 호텔(4성, 4실 2인1실), 입장료, 여행자 보험, 항공세, 선내 다인실 기준, 전일정 식사(선내 포함)
- 불포함사항: 중국 비자비, 현지 가이드 기사비, 개인경비

중국 불교 성지 순례

1.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79만원
2.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85만원
4.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69만원
5.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일 69만원
6. 달라이라마 티벳 8일 169만원

삼천에 귀의 하얏고
 당시는 중국과 제주도를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차님을 위한 중국여행과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차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록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